

여성 한부모의 사회자본과 자녀유능감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매개효과로서 부모효능감에 관한 연구

The Mediating Effect of Single Mother's, Parental Self-Efficacy between the Social Capital and Perceived Competence of Children

최윤정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Youn-Jung Choi(mikyj@hanmail.net)

요약

본 연구는 여성 한부모의 사회자본이 자녀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그 과정에서 부모효능감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즉, 여성 한부모의 사회자본이 자녀유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부모효능감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검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경로를 분석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 한부모의 사회자본은 부모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성 한부모의 사회자본은 부모효능감을 매개로 해서 자녀유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 한부모의 사회자본은 직접적으로는 자녀유능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부모효능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자녀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 한부모의 사회자본이 자녀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부모효능감이 완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 한부모의 자녀유능감을 촉진시키기 위한 실천적 함의들이 논의 되었다.

■ 중심어 : | 여성 한부모 | 사회자본 | 부모효능감 | 자녀유능감 |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in Single Mother's Perceived competence of children and whether Parental Self-Efficacy mediate in the process. We were examined by the statistics software SPSS 22.0 and AMOS 21.0 in which descriptive statistics,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are utilized. The result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ingle Mother's Social Capital has positive effects on Parental Self-Efficacy. Second, Parental Self-Efficacy has positive effects on Perceived competence of children. It was proved that Parental Self-Efficacy exerted as mediating variables. Therefore, existent Parental Self-Efficacy have full mediated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Perceived competence of children. Possible reasons for the this result were identified and discussed.

■ keyword : | Single Mother | Social Capital | Parental Self-Efficacy | Perceived Competence of Children |

I. 서론

사회가 다양화, 다원화 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가족형

태가 생겨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한부모 가족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2017년 통계청에서 제시한 「장래가구추계」를 살펴보면 한부모와 미혼자

접수일자 : 2019년 05월 10일

수정일자 : 2019년 05월 27일

심사완료일 : 2019년 05월 29일

교신저자 : 최윤정, e-mail : mikyj@hanmail.net

녀로 구성된 한부모 가족이 2005년 137만(8.6%)에서 2017년 212만(10.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1]. 또한 미혼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 한부모의 비율이 남성 한부모 보다 2.8배 정도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 여성 한부모의 증가는 곧 여성 한부모 자녀의 수도 증가함을 의미한다.

여성 한부모 자녀들은 양친부모 가정 자녀들에 비해 전반적인 발달과 성장 수준에서 격차를 보이고 있다[3-5].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는 상황에 대한 개인 인지의 차이로 인한 결과임이 보고되어 지고 있다. 인지이론에서는 인지체계가 행동을 중재한다고 제시하고 있다[6]. 즉, 자녀가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인지하는지에 따라 행동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긍정적인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인지적 요인으로 주목받는 개념이 유능감이다. 유능감은 자신의 역량에 대한 내부적 평가와 지각이다[7]. 유능감은 자신감과 연결되고 일상의 각 영역인 학업에서의 유능감, 또래 관계, 자기관리에 대한 유능감을 포함하는 개념이다[8]. 유능감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탐색하고 이를 위한 행동을 실행하고 이를 통해 능력과 기술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하는 중요한 심리적 자원이다[8]. 또한, 유능감은 무언가를 배우려는 동기를 추진하는 엔진과 같고, 자기 동기화가 강해지면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고, 힘든 상황에서도 의욕적으로 지속해 나갈 수 있게 도와준다[9]. 이와 같이 유능감을 갖게 되면 건강한 발달을 할 수 있는 동기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잠재력에 대한 발견을 가능하게 하고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끄는 힘을 가지게 되며,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능감은 여성 한부모 자녀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인지이론에 의하면 유능감은 주요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다고 제시하였다[7]. 자녀유능감은 자녀의 개인적 변인뿐만 아니라 부모와 또래 집단과의 상호작용 등 환경적 변인의 영향을 받으며 발달한다[10]. Cohn 등(1991)은 자녀의 유능감 발달에 있어서 가정환경적 요인과 부모의 영향이 중요하다고 제시하였다[11]. 한부모 가족의 가정환경이 자녀에게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한 이론 중 대표적인 것이 경제적 결핍 관점이다[12]. 자녀의 발달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이 가족구조 보다는 가족해체로 인한 경제적 소득의 감소와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지위의 하락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관점에 대한 대체 이론으로 사회자본이 언급되어질 수 있다. 사회자본은 지금껏 화폐적 가치로만 인식되어 온 자본에 대한 개념을 새로운 관점에서 조명하고 있다[13]. 초기 사회자본 연구는 다양한 유형의 관계망 형성에 초점을 두었지만 최근에는 사회연계의 속성으로 인지적 측면에도 초점을 두고 있다[13]. 즉, 인간관계속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사회적 연결망이나 기타 사회 집단내의 구성원이 되어 확보하게 되는 일정한 자산이나 능력이다[14]. 사회자본은 하나의 실체를 가진 것이 아니라 기능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띠며, 인적자본 획득에 중요한 요인이며 신뢰와 연대가 존재하는 네트워크에서 생성된다[15]. 사회자본은 개인의 행동능력을 향상시켜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고 개인들에게 소속감이나 정체성, 결속력을 제공해서 이전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처리하는 등 눈에 보이는 이익을 발생시키는데 기여한다. 또한, 경제자본과 달리 사회자본은 사용해도 소멸되지 않고 오히려 사용할수록 증가한다. 사회자본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상황이 자녀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극복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개념으로서 또는 자녀의 발달과 적응, 학업성취 등과 관련되어지는 요인으로서 언급되고 있다[16].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경제적 자본의 취약성으로 인해 자녀의 부정적 발달의 위험이 높은 여성 한부모 가족에게 사회자본은 자녀의 긍정적 발달을 위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더불어 자녀 유능감 발달에 부모요인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되어지고 있다[11]. 자녀가 탄생하는 순간부터 성장하는 과정 중에 지속적이고 많은 접촉을 하게 되는 어머니는 자녀 유능감 발달에 가장 중요한 직접적인 환경요인이라 할 수 있다. 부모는 자녀들이 가진 개인적인 자원 즉, 인지적, 성격적 동기적 자원들이 결실을 맺기까지 많은 역할을 한다[17]. 인간은 자신에 대한 중요한 타인의 평가를 흡수하여 자아개념을 형성한다. 따라서 긍정적인 부모의 평가는 긍정적인 자기 인식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부모에게 받는 긍정적인 메시지는 자녀의 뇌에 긍정적인 기억들로 인식되어 자신에 대한 유능감 증진을 불러온다[17]. 자녀 양육의 인지적 요인인 부모효능감은 부모의 자아형성 뿐 아니라 자녀의 긍정적 발달과 관련되어진다. 부모효능감은 반두라의 사회인지이론의 자기효능감에 근거를 두고 있고 자신이 부모로서 자녀의 행동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자기 인식이다[18]. 부모효능감은 상황에 따라 보다 적절하고 융통성 있으며 일관된 양육행동과 관련되어지며 자녀의 심리적, 사회적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자녀의 유능감에 있어서 어머니의 긍정적인 평가는 무엇보다 중요하며[10]. 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성공할 수 있다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격려하면 자녀의 학업성취가 높아지고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성공적인 발달을 이루게 된다[19]. 부모효능감이 높을수록 긍정적이고 따뜻한 태도를 취하며 자녀를 유능한 존재로 취급한다[20].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자녀 유능감에 여성 한부모의 사회자본과 부모효능감이 관련되어짐을 알 수 있다. 많은 연구들에서 부모효능감은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어머니의 사회자본은 자녀의 유능감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어머니의 사회적 관계성을 증진시켜 어머니 자신에 대한 효능감을 높인다[21]. 저소득층 부모가 가지는 지역사회환경의 질과 지역사회 사회적 지지가 자녀의 발달과 부모효능감도 높인다는 연구들이 존재한다[22][23]. Coleman 과 Karraker(2000)은 부모효능감은 자녀양육과 관련된 여러 요인들이 자녀양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재적인 역할을 하며, 결국 자녀의 전반적인 발달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18].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통해 여성 한부모의 사회자본은 자녀 유능감과 부모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더불어 부모효능감을 통해서 자녀 유능감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여성 한부모의 사회자본[4][15], 부모효능감[12][23], 자녀의 적응[12][26] 관련 연구들이 단편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들 세 변인들의 관계를 다차원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 한부모의 사회자본이 자녀유능감과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부모효능감이 사회자본과 복합해서 작용하는 경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즉, 여성한부모의 사회자본과 자녀유능감의 관계에서 부모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사회자본이 자녀유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보다 정교하게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여성 한부모의 자녀 유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보호요인을 탐색하고 여성 한부모 자녀에 대한 실천적인 개입을 위한 기초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 한부모의 사회자본이 부모효능감과 자녀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여성 한부모의 부모효능감이 자녀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여성 한부모의 사회자본이 자녀의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부모효능감이 매개하는 효과가 있는가?

II. 선행연구 고찰

1. 사회자본과 자녀유능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고정변수라면 사회자본은 교육적 맥락에서 학교 재생산 경향이나 과정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변수이다[4]. 이는 사회자본이 여성 한부모가 지니는 사회 구조적인 취약성에 의해 자녀가 학교교육 과정이나 발달과정에서 받을 불이익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부모의 사회자본은 자녀가 불리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성공적인 발달과 성장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준다[24]. 가족의 사회자본은 자녀의 높은 교육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25], 교육적 성취를 촉진하며 [26], 자녀의 학업유능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27]. 또한, 어머니의 사회자본은 자녀의 유능감을 증진시키며[3][21], 자녀의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4].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여성 한부모의 사회자본이 자녀유능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고려 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2. 부모효능감과 자녀유능감

부모가 부모역할에 대해 갖는 부모효능감은 양육행동을 잘 예측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자녀의 발달 차이를 유발한다[6]. 부모효능감은 자녀발달에 긍정적 관계가 있으며 어머니의 부모역할의 경험에 관련되어짐이 확인되었다[3][28]. 부모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하며 자발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문제 상황에 임하는 특성이 있다[29].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높은 부모효능감은 자녀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함으로써 사회적 유능감을 높이고 원만한 사회작용을 통해 대인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도록 이끈다[3]. 또한, 부모효능감은 자녀의 학업 자기효능감[30]과 학교생활적응[31]을 높이는데 기여하며, 자녀의 안녕과 성공을 촉진한다[32]. 부모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발달을 긍정적으로 이끌지만, 낮은 부모는 부적절한 양육행동을 보이고 아동의 긍정적 발달을 방해한다[32].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가지는 양육에 대한 인지적 가치관인 부모효능감이 자녀의 성공적인 발달의 기초가 되는 유능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3. 사회자본과 부모효능감

부모가 사회에 의해서 가치와 효능감을 인정받을 때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다[33]. 한부모는 타인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의 결과로 얻어진 사회자본을 통해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고 문제해결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34]. 부모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사회적 지지는 다양한 관계들로부터 연계 되는 사회적 도움으로서 부모의 긍정적 자원이자 잠재적인 자원이 된다. 이희성과 유순화(2013)는 부모효능감 관련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해 부모의 광범위한 사회적 환경에서의 실질적인 도움과 인정을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부모효능감이 높아지고 가정의 물질적인 자원은 부모효능감과 관계가 낮음을 확인하였다[6]. 어머니의 사회자본은 어머니의 사회적 관계성을 증진시켜 어머니 자신에 대한 지각을 높이며 부모양육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21].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한부모 여성의 사회자본

이 부모효능감과 관련되어지는 변수임을 예상해 볼 수 있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여성 한부모의 사회자본이 자녀의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부모효능감을 매개변수로 설정하고 사회자본이 여성 한부모 자녀의 유능감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그리고 사회자본이 부모효능감을 경유하여 자녀의 유능감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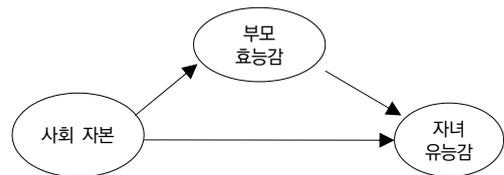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조사의 연구대상은 대전에 거주하는 여성 한부모로서 18세 이하 자녀를 1명이상 이상 양육하는 어머니 206명이다. 표집절차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며 18세 이하 자녀를 1명이상 양육하는 여성 한부모를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여성 한부모 특성상 유의표집 방법을 통해 대상자를 표집하였다. 구체적으로 대전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이용자의 개인적 관계망, 본 연구자의 개인적 관계망, 임대아파트 거주자, 인터넷 지역카페 이용자등을 대상으로 관련 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진행되었다. 조사기간은 2017년 10월 23일부터 2018년 2월 16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총 233부가 회수되었으나 불성실한 응답자로 판단되는 27부를 제외하고, 총 206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다음과 같다. 종속변수인

여성 한부모 자녀 유능감 척도는 Harter(1982)의 Self 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을 전경숙(1992)이 번안 구성한 척도로 박준희(2009)가 사용한 자녀유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5점 척도로 총 21문항이며 신뢰도가 .715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여성 한부모의 사회자본 측정을 위해서 이인숙(2013)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사회자본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4점 척도로 총 49문항이며 신뢰도 .914로 나타났다.

매개변수인 부모효능감은 Giband-Wallston과 Wandersman(1978)이 개발하고 신숙재(1997)가 수정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5점 척도로 총 15문항이며 신뢰도가 .825로 나타났다.

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 및 여성 한부모 특성에 대해서는 SPSS 22.0 Package를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였고,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성 한부모 사회자본이 자녀의 유능감에 미치는 과정을 분석하고자 AMOS 21.0을 이용하여 요인분석과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후에 여성 한부모의 사회자본과 자녀의 유능감의 관계에서 부모효능감의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ootstrapping를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인구 사회학적 특성 및 주요요인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항목	빈도	백분율(%)
연령대	30대미만	91	44.2
	40대	80	38.9
	50대	35	16.9
학력	고졸이하	118	57.2
	전문대졸	50	24.2

한부모이유	대졸	38	18.4
	비혼모	20	9.7
	사별	30	14.6
한부모기간	이혼	156	75.9
	5년 이하	120	58.3
	6년-10년	59	28.6
	11년 이상	29	14.0

연령대로는 30대 미만 91명(44.2%), 40대 80명(38.8%), 50대 35명(16.9%)로 나타났다. 학력 분포는 고졸이하(57.2%), 전문대졸(24.2%), 대졸(18.4%)로 고졸이하가 50%를 차지하고 있다. 한부모가 된 이유로는 비혼모(9.7%), 사별(14.6%), 이혼 156(75.9%)로 대부분이 이혼을 통해 여성 한부모가 되었다. 한부모 기간은 5년 이하가 120명(58.3%), 6년에서 10년(28.6%), 11년 이상(14.0%)으로 나타났다. 과반수 이상이 한부모가 된 기간이 5년 이하임을 알 수 있었다.

여성 한부모의 주요특성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여성 한부모 자녀의 유능감은 5점 만점에 3.15의 평균값을 보였고, 부모효능감은 5점 만점에 3.18로 나타났으며, 사회자본은 4점 만점에 2.44 나타났었다.

표 2. 여성 한부모의 주요특성

요인	최대값	최소값	평균	표준편차
사회자본	3.33	1.29	2.44	.36
부모효능감	4.40	1.87	3.18	.44
자녀유능감	5.00	1.62	3.15	.64

2. 경로모형분석

2.1 모형의 적합도 검증

모형에 대한 적합성 평가는 구조모형이 가정에 얼마나 적합한가를 살펴보고 검토하는 절차로 적합도 지수를 통해 알아보게 된다. 본 모형의 모형 적합도 지수는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연구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절대적 적합지수로서 χ^2 과 GFI, RMSEA를 사용하였고, 기초모형에 대한 제안모형의 부합도 평가를 위해 비표준 적합지수 TLI와 표준적합지수 NFI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χ^2 이 51.65이고 그 확률치가 .000으로 모델의 적합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구조방정식에서 χ^2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

있을 때 적합한 모형이지만, χ^2 이 표본수에 민감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더라도 GFI, TLI, NFI이 모두 0.9이상이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RMESA가 0.08보다 작으면 양호한 모형으로 해석할 수 있다 [35].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χ^2 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왔지만, GFI, TLI, NFI의 지수들이 모두 .9이상이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RMESA가 .078로 나타나 본 모형의 모형 적합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3. 모형의 적합도 검증

적합도 지수	χ^2	df	p	GFI	RMESA	TLI	NFI
기초 모형	51.65	18	.000	.935	.078	.901	.906

2.2. 경로계수검증

연구모형에서 사용된 경로계수에 대한 추정계수와 표준화된 계수, 표준오차, t값은 다음의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표 4. 각 변수들의 경로계수와 유의도

경로	B	β	SE	t값
부모효능감←사회자본	1.66	.371	.002	3.159
자녀유능감←부모효능감	.118	.341	.002	3.037

*p < .05 **p < .01 ***p < .001

첫째, 사회자본이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자녀유능감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자본은 부모효능감(.371***)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여성 한부모의 사회자본이 부모효능감을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사회자본이 부모효능감을 거쳐 자녀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자본의 영향으로 여성 한부모의 부모효능감(.371***)이 높아지고, 높아진 부모효능감이 자녀의 유능감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341***), 부모효능감은 사회적 자본과 자녀유능감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갖고 있음이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여성 한부모의 사회자본은 자녀유능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부모효능감을 매개로해서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쳐 부모효능감이 완전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경로계수를 나타낸 모형의 결과를 도식화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연구모형의 경로계수와 유의도(표준화계수)

2.3. 여성 한부모 자녀유능감 관련 변인들의 효과

다음으로 변수간의 효과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로 분해하여 살펴보았다. 각 효과의 유의미성은 AMOS 프로그램의 bootstrapping 방법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여성 한부모 자녀유능감과 관련된 변인들의 효과를 분해한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자녀유능감 관련 변인들이 자녀유능감에 미치는 직접효과, 간접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어떤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사회자본은 자녀유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부모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127=.371×.341)로 하여 영향을 미쳤다. 부모효능감은 사회자본(.341)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간접효과와 직접효과를 통해 총 효과를 분석해본 결과 부모효능감(.341), 사회자본(.127)순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 한부모 자녀유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부모효능감이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여성 한부모의 사회자본은 직접적으로는 자녀의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부모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효능감이 완전매개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 여성 한부모 자녀유능감 관련 변인들의 효과(표준화계수)

기준변인	예측변인	총 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부모효능감	사회자본	.371	.371	
자녀유능감	사회자본	.127		.127
	부모효능감	.341	.341	

*p < .05 **p < .01 ***p < .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여성 한부모의 사회자본이 자녀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자본이 부모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자녀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경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 한부모의 사회자본은 부모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들에서 여성 한부모의 사회자본과 부모효능감이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사회자본이 부모효능감을 높인다는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6][21][33]. 둘째, 여성 한부모의 사회자본은 부모효능감을 매개로 해서 자녀유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 한부모의 사회자본은 자녀유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부모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자녀 유능감에 영향을 미침으로 매개변수가 이들 간의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연구들에서 여성 한부모의 사회자본이 자녀 유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3][21]와는 다른 결과이고 Coleman 과 Karraker(2000)가 부모효능감이 자녀 양육과 관련된 요인이 자녀양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재적인 역할을 통해 자녀의 전반적인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제시한 것[18]과는 비슷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사회자본과 자녀 유능감과 관계를 단선적으로 연구하기보다는 제 3의 변인을 통한 다차원적인 검증을 통해 그 관계성을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해볼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자녀유능감 관련 변인들이 자녀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본 결과 직접효과는 부모효능감(.341)이 나타났고, 전체효과는 부모효능감(.341), 사회자본(.127) 순으로 나타나, 부모효능감이 자녀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여성 한부모의 자녀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요인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여성 한부모의 사회자본이 부모효능감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여성 한부모의 사회자본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지지적인 공식적,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는 활동이 필요할 것이다. 가족, 이

웃, 친구, 종교단체, 취미활동과 같은 비공식적 사회관계망 확대를 통해 사회자본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녀 학교에서 일어나는 부모 참여 활동을 통해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여성 한부모의 정보와 자원의 양이 증가되는 것 뿐 아니라 자녀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함으로써 자녀유능감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다. 선행연구들에서 어머니가 자녀 학교와의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면 자녀의 성공적 발달과 적응, 학업성취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제시되고 있고[36]. 더불어 부모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여기는 경향이 나타나 학부모의 적극적인 학교 참여가 부모효능감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이 보고되었다[31]. 학교에서 진행되는 가족 봉사활동에 자녀와 함께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유대와 신뢰가 형성되고 비공식인 관계망을 통한 정서적 지원도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공식적 관계망인 정부에서 운영되는 한부모 가족지원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여성 한부모의 공식적, 비공식적 네트워크가 강화 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스스로 사회자본을 확충하는 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적극적인 개입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사례관리 방법을 통해 여성 한부모의 개별특성과 가족 특성, 지역사회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을 시도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여성 한부모의 부모효능감이 자녀유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행연구들에서 어머니가 가지는 자기효능감이 부모효능감을 증진시키는 요소로서 언급되어지고 있다. 자기효능감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성 한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의 개선이 요구되어진다. 여성 한부모에 대한 정부차원에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 한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부모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어지고 있다[6]. 여성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스트레스 중 가장 큰 요인으로 시간의 부족을 언급하고 있다. 어머니와의 대화하는 시간이나 같이 활동하는 시간의 증가가 자녀의 유능감을 증가시킨다고 보고되어 지고 있다. 따라서 한부모 가족에 대한 정책 지원에 있어서 시간 보장 부분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

다. 마지막으로 부모역할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 부모효능감은 부모로서 자신의 상황을 활용하여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의 확신이다. 따라서 바람직한 부모역할에 대한 풍부한 정보는 부모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 될 것이다. 지역사회복지관이나 공공 서비스 기관에서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부모 멘토 서비스를 실시하거나 어머니가 실제적으로 양육의 성공경험을 쌓을 수 있는 부모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거나 다른 여성 한부모의 성공적 양육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생성하고 활성화시키는 활동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한부모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우리나라 전체 여성 한부모에 일반화하는데 한계를 갖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여성 한부모의 사회자본이 자녀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부모효능감의 완전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하지만, 여성한부모 자녀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이 외에도 더 많이 존재함으로 다양한 변인들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한부모의 특성과 자녀의 특성에 따른 차이도 추가적으로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2017.
 [2]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6.
 [3] 유은경, 최혜경, 배한나, 이연주, “한부모 가정 아동·청소년의 사회자본과 행복감 간의 관계에 사회적 역량의 매개효과: 양부모가정 아동·청소년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제55권, pp.283-315, 2017.
 [4] 김현숙, “한부모 가정의 사회자본이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부모 성별, 한부모 기간, 교급에 따른 차이,”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제35권, pp.275-302, 2016.
 [5] 이시연, “한부모가정 청소년의 가족관계,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과 비행의 구조모형 검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11호, pp.759-770, 2014.
 [6] 이희성, 유순화, “부모효능감 관련변인에 대한 메타분

석,” *한국아동학회지*, 제34권, 제1호, pp.35-51, 2013.
 [7] 최윤선, 이규미, “유능감에 관한 국내 연구의 동향,” *한국심리학회지*, 제14권, 제3호, pp.305-330, 2017.
 [8] 김현자, “다중지능과 가정변인이 초등학생의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방과후아동지도연구*, 제2권, 제2호, pp.135-155, 2006.
 [9] D. Stipeck and K. Seal, *Motivated minds-raising children to love learning*, Henry Holt and Company, LLC, 2001.
 [10] 서미정, 김경연, “개인적 변인 및 환경적 변인이 아동의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제21권, 제1호, pp.45-57, 1999.
 [11] D. Cohn, C. Paterson, and C. Christopoulos, “The family and children’s peer relation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Vol.8, pp.315-346, 1991.
 [12] 김현숙, “한부모가족의 소득, 양육태도, 교육적 지원, 학교적응의 종단적 관계,” *어린이재단 연구논문*, pp.49-97, 2015.
 [13] 서정아, “사회자본과 사회지출이 청소년의 주관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제70권, 제2호, pp.85-113, 2018.
 [14] 김민수,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자본과 임파워먼트*, 대구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15] 김기홍, 허태열, “사회자본을 통한 농촌의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 구축방안 연구,” *농촌사회*, 제22권, 제1호, pp.89-131, 2012.
 [16] 강현주, 김정화, 최민자, “사회적 자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초등학교와 중학교 시기의 비교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제14권, 제2호, pp.281-306, 2012.
 [17] 이보영, “부모의 양육효능감, 양육행동과 자녀의 창의적 성향과의 관계,” *한국보육학회지*, 제12권, 제4호, pp.115-132, 2012.
 [18] P. K. Coleman and K. H. Karraker, “Parenting self efficacy among mothers of school-age children: Conceptualization, measurement, and correlates,” *Family Relations*, Vol.49, No.1, pp.13-24, 2000.
 [19] 송순옥,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및 정서조절능력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 21, 제8권, 제33호, pp.493-510, 2017.

[20] 유지현, 이경남, “유아의 기질과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및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 미래교육학회지, 제24권, 제1호, pp.277-303, 2017.

[21] A. G. Hunter, S. Z. Tarver, M. Herring, and A. Fletcher, “Social Capital, Parenting, and African American Familie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Vol.28, Issue 2, pp.547-559, 2019.

[22] 이봉주, 김선숙, 김남희, “한국 아동발달에 대한 탐색적 연구-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사회자본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제31권, pp.107-141, 2009.

[23] 이진화, 임원진, 김경은, “저소득층 부모가 지각한 부모효능감, 결혼만족도, 사회적 지지와 지역사회환경의 질이 가정 중심 유아교육의 부모참여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제19권, 제5호, pp.761-774, 2010

[24] F. F. Frank and E. H. Mary, “Social Capital and Successful Development among At-Risk Youth,”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57, No.3, pp.580-592, 1995.

[25] 김향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정 및 학교 내 사회자본, 교육포부 간 구조적 관계 분석: 가족구조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26] G. D. Israel, L. J. Beaulieu, and G. Hartless, “The Influence of Family and Community Social Capital on Education Achievement,” *Rural Sociology*, Vol.66, No.1, pp.43-68, 2001.

[27] 최현주, 김지원, 조수현, “청소년기의 자율성, 유능감, 부모 지지간의 종단적 관계,” *한국심리학회지:학교*, 제12권, 제2호, pp.225-248, 2015.

[28] R. Madeleine, “Refining the role of social support in First-time mother’s Development of parental Self-efficacy,” UC Santa Cruz: Psychology. Retrieved from: <http://www.escholarship.org/uc/item/3n49flmc>, 2017.

[29] 소속영, 손정락, “긍정 심리치료가 발달 장애 아동 어머니의 우울, 부모효능감 및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스트레스 연구*, 제21권, 제2호, pp.95-107, 2013.

[30] 이양희, 김금미,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자녀의 학업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학습지원행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18권, 제4호, pp.549-565, 2013.

[31] 김세리, 이수현, 구예진, 이강이, “학부모 학교참여가 부모효능감을 매개로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간발달학회*, 제23권, 제4호, pp.139-154, 2016.

[32] A. M. Albanese, G. R. Russo, and P. A. Geller, “The role of parental self-efficacy in parent and child well-being: A systematic review of associated outcome,” *Child: Care, Health & Development*, Vol.45, Issue 3, pp.333-363, 2019.

[33] J. L. Epstein, *School, family and community partnerships: Preparing educators and improving schools*, Boulder, CO:Westview Press, 2001.

[34] 이인숙, “한부모 여성의 사회자본과 삶의 질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양부모 여성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44권, pp.4-19, 2013.

[35] R. MacCallum, K. Widaman, K. Preacher, and S. Hong, “Sample size in factor analysis: The role of model error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Vol.36, pp.611-637, 2001.

[36] 서지원, “가정안정에 대한 사회자본의 효과분석: 1인가구와 한부모가구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지원경영학회지*, 제21권, 제2호, pp.25-50, 2017.

저 자 소 개

최 윤 정(Youn-Jung Choi)

정회원



- 2014년 : 서울여자대학교 박사
- 2005년 ~ 2007년 :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 현재 :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가족복지, 정신건강사회복지